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주요 날짜:

- 6 월 4 일
성령강림 대축일
Soup Kitchen 봉사
- 6 월 11 일
삼위일체 대축일
성경모임
- 6 월 24 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6 월 25 일
서약 / 입회식
- 6 월 29 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다음쪽:

성경모임

4 월 월례회

이달의 작은 사람



눈은 마음의 창

지난달 월례회 때 영적 보조자 Mark 수사님께서 명제가 들어있는 부활 달걀을 준비하여 형제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는데, 저의 달걀 안에 들어있던 명제는 ‘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눈’은 지난 한달 동안 저의 묵상 제목이 되었습니다. ‘눈’에 대한 묵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 말씀 중에서 눈에 대해서 읽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 먼 두사람 둘이 따라 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 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니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마태 9:27-31)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이 그들에게 잡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20:29-34)

이 은영 마리아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눈빛으로 말해요.” 유행가 가사에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아기를 보는 엄마의 사랑스런 눈빛,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눈빛, 다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우리 프란치스코인들의 눈빛... 참으로 눈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눈빛과 달리 상대방을 무시하는 위압적인 눈빛,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빛, 그리고 살기어린 눈빛 등도 있습니다. 또 이런 감정들과 대칭으로 슬픔과 불안에 떠는 눈빛, 도움과 구원을 애원하는 눈빛도 있습니다. 각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눈빛의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 뿐이었다고 합니다. 눈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빛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빛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눈빛의 삼각형 한 가운데에 ‘믿음의 눈빛’을 놓고 동그라미를 쳐 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결국 믿음으로 빛을 본다는 성경말씀을 세상살이 이치에 쫓아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 시각작용을 동반하는 세가지 눈빛들의 한 가운데, 이런 지각활동을 떠난 ‘마음의 눈빛’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마음의 창은 눈’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빛을 보는 눈을 뜨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성경모임 - 판관기편

처음 구약의 판관기를 읽고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가졌던 의문들인 하느님께 대한 반복되는 배반, 그에 따르는 징벌과 회개,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로 찾게되는 평안을 대하면서 이 것은 성사를 보고 돌아서면 다시 죄를 범하는 나의 아니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비유적 해석으로 이해하였던 지난 날의 이해를 다시금 원용하는 것은 성경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로서 유대인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여겨진다. 이 것은 차라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 진리라는 뉴턴의 기계론적 사고에 젖어있는 우리들 모두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한 경종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시 말해 우리들 이해의 폭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능력, 즉 개개인의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알아차리시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매 시대 그 모두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또 다른 폭의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이러



나눔의 시간



team work?

한 접근은 또 다른 관점의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그 자아의 한계는 어디 까지인가? 각각의 의지가 최악이라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하느님의 전능으로 이미 인지하셨음에도 그걸 허락하심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은 최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폭발적으로 소생하고 있는 하느님의 지적 설계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나의 자유의지는 과연 나의 것인가?”
오 바오로 형제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4 월 월례회

지난달 23 일 월례회에서는 사도행전 4 장 32-35 장의 말씀을 주제로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현세의 우리들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나눔을 Mark 수 사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천주교인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된 각 반별 양성, 공지사항 및 토의에 이어 성무일도로 월례회를 마쳤습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은 부인 루피나 자매님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 복연 바오로 형제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오로(축일 6 월 29 일)가 본명 성인이신 형제님은 1969 년 루피나 자매님과 결혼하셨고 1 녀 1 남을 두고 계십니다. 천주교 집안 출신 바오로 형제님의 천주교 신자여야 된다는 결혼 조건에 자매님은 교제 시작 후 교리공부를 시작하여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1987 년 친척의 권유로 브라질로 이민하여 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번창해진 사업 관계로 현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어 1997 년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도 바쁜 고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시던 중, 1999 년 고향같은 브라질과 자연 조건이 흡사한 San Diego 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당 구역모임에서 프란치스칸을 만남으로 저희 형제회에 나오시게 되어 2004 년 6 월에 입회하신 형제님은 그 후 착실히 양성과정을 밟아 다음달에 서원을 앞두고 계십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면 어김없이 부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downtown 에 위치한 Prayer's House 를 찾아 무숙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난과 겸손을 통해 가장 예수님을 닮고자 하셨던 성 프란치스코를 마음에 품고 있는 만큼, 우리 형제들의 마음도 하나이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

